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살면서 무던히도 주님 속을 꿰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으면서도 냉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도가 없던 삶은 혼탁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결국엔 믿음의 길에서 크게 쓰러졌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당신이 중심에 없는 삶은 부실이었습니다. 기초 없는 공사였고 잘못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날 인생의 귀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볼때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가끔씩 인생 문제를 들고 저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 놓는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무조건 성체 조배를 해 보라고 합니다. 진부한 답 같지만 인생 문제에 이보다 더 큰 답은 없습니다. 삶에 답이 안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정답을 찾아 주십니다.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물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감겨 있던 것들이 눈을 뜹니다. 주님을 청하는 순간 그분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십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성공을 놓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 문제도 주님 없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문제지에 세상 답을 썼다가 실패를 본 경험자입니다. 그 많은 날들을 허비하고서야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가 찾는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찾아 놓은 답을 정답으로 믿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 주시는 답만이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좀 더 일찍 깨우치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정녕 주님께만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해 놓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 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루를 보내며 그 하루를 평생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평생이 끝나는 그 날에는 그분과의 동행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살면서 더는 주님의 손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만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그분을 다음 세상에도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아직 받지 못한 인생 문제지들이 어찌먼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시험지를 받게 될 날, 그 때는 제일 먼저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지에다 제가 고른 답을 자신 있게 쓸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조건 주님을 붙드는 거라고.

김강정 신부

자판기 하느님?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친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였지만, 또래들에 비해 학습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도 탤런트 섭외까지 받을 정도로 미모는 뛰어났습니다. 그런 동생이 한창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신부님, 나 돈 많고 집안 좋은 의사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 주라” 순간 발끈한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당이나? 소원 빌어주게. 그리고 하느님이 소원 비는 대상이야? 자판기야?”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위에서 언급했던 그 동생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며, 자신들의 틀 안에서 만들어 판단하고 기대하는 자판기식의 하느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귀에는 자신들의 야망과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다고 투덜거립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께서 체험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따라다녔는지 알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포용해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1독서에 나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으로 하느님을 찾다 못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기보다는 여호수아와 판관들을 통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오늘 제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과 우리는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판기식의 하느님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거나 아쉬울 때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정작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편하고 행복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적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 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더 이상 자판기식으로, 오늘 복음에 등장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정 주님과 대화 하며 살아갈 때 사도들처럼 제대로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성진(안드레아) 신부

2009년 8 월 16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00.00
교 무 금 : \$ 160.00 188(60) 192(100)
감 사 금 : \$ 2000.00 (익명)
성전건립 : \$
(성모동산 누계 : \$1955.00)
합 계 : \$ 2860.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김대중 전대통령 선종 관련 애도 메시지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의 선종(善終)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과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습니다.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핍박 속에 여러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사형선고를 받아 옥살이를 하고 이후로도 수십 년 간의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할 만큼 진정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지상의 삶을 충실히 마치고 선종하신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의 선종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고인의 영혼이 자비하신 하느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9년 8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본 당 소 식

● 금일 미사 중 본당창립 기념미사 및 축하식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목회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 본당 창립 기념 신앙 특강

일시 : 8월 30일 (주일) 오후 5시 미사 중
주제 : 신앙인의 자세
강사 : 이현하(야고버) 종신부제

● 울뜨레야 모임 안내

일시 :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교육관
문의 : 울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바뇌의 성모기도회 100차 모임 안내

일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문의 : 장명길 바오로
100차 모임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본당 창립 기념접시 주문 안내

본당 창립 기념패를 원하시는 교우들 위해 주문 판매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마감)
예상가는 약 \$ 60입니다.
▶ 문의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

일시 : 9월 5일(토) 오후 1시 미사
장소 : Midland Martyrs Shrine
▶ 문의: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건진성사 신청안내

구역장들께서는 건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주십시오.

● 2009년 여성 꾸르실료 주말 신청 안내

일 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 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 참가비 : \$ 320.00
문의: 울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영명축일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누락 및 정정이 필요한 교우들은 명단에 써주십시오.

●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 음악회 안내

일시 : 11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성가대 단장 문혜라 크리스티나

● 9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3구역입니다.

▷ 10월 : 워털루 2구역
▷ 11월 : 청소년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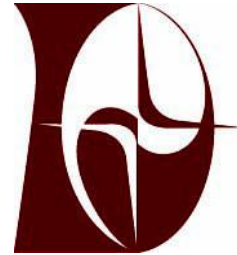
▷ 워털루 2구역 : 9월
▷ 워털루 3구역 : 10월

● 평일미사와 성체조배를 생활화하기를 바랍니다.

■ 본당신부 단상(斷想)

인터넷으로 ‘사용 후 정리정돈’을 검색해보니 모교회 게시판에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 지저분하게 쓰십니다. 의자 정리 정돈 축구공 등 운동기구 제자리에, 테이블 깨끗이 치워주시고, 복사하시는 분들 이면지 합에 이면지와 폐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시고, 스탬플 찍힌 것 빼주시고, 이거 초등학교 졸업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기본입니다. 부탁 드려요.”라는 글이 나오더군요. 우리 성당도 캐나다인 성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교육관 이용시에도 약간(?)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봉사자들도 신날 듯합니다.

축령산 금곡마을에는 ‘마음을 씻는 집’이라는 뜻의 ‘세심원(洗心院)’이 있습니다. 그리 유명한 한 집은 아니지만 처마엔 격식없이 휘갈겨 쓴 ‘아니온 듯 다녀가소서’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은 한마디로 “정리정돈 잘하고 가라”는 것입니다만 신앙의 문으로 보면 많은 생각들이도록 하는 문구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있게, 조화롭게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물인 자연을 보고도 마음을 씻을 수 있는데 하물며 매주일 온 세상의 주인인 주님의 꿈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런지요?
성당, 교육관 뒷정리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 정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6호

2009. 8. 23.

연중 제21주일

미 사 전 례

해 설 고영호 차주 해설 이명희

성 가

입 당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성 체 (187) 천사의 양식
퇴 장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화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
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솔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독	서
8월 16일	고영호	고기숙
8월 23일	최우석	최연옥

	봉	헌
8월 23일	고영호	고기숙
8월 30일	최우석	최연옥

	복	사
8월 23일	최예슬	김근영
8월 30일	안아림	노승범